

기획시리즈 / 2009 캠페인 "Go! Green Logistics"-9

녹색물류 코리아 어떻게 색칠되나

-국내 물류업체 실천 사례-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다.

자연보호라는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녹색이 수산업군을 물들이고 있다. 물류도 이에 빠지지 않았다. 녹색물류 관련된 세미나들이 줄을 잇고 관련된 연구가 쏟아져 나온다.

이에 본지도 2009 연중 캠페인 "GO! Green Logistics"란 이름으로 녹색 열풍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국토해양부가 후원하고 농협물류, 대한통운, 세방, 한진, 현대택배(주)가 후원한다.

2월 1일부터 7차례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녹색물류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봤으며 전문가의 기고로 녹색물류의 선진화를 이끌었다. 이전 시리즈물을 통해 녹색물류 코리아의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 6월 15일부터는 국내 녹색물류 실제 사례를 발굴해 어떻게 색칠돼 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녹색물류? 그거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국내 물류기업들이 녹색물류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경기 불황인 지금 기업도 살아남기 힘든데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녹색물류라는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이미 오래전부터 녹색물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물류가 국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MB정부가 녹색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나서 부터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녹색물류는 물류기업들에게 '반드시'란 과제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녹색물류를 실행하고 있거나

이는 어찌된 반응일까.

그들의 주장대로 녹색물류는 오래전부터 물류업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지 녹색이 아닌 비용절감이란 이름표를 달고.

운송비는 통상 물류비의 70~80%를 차지한다. 운송비의 절감은 운송거리, 주유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연결된다. 물류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녹색물류를 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공동수배송을 통한 운송 단위 대형화, 운행 차량 수 감축, 운행 거리 감소는 물류기업의 주특기이면서도 녹색물류의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토부의 지원 아래 LNG 혼소 차량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에코 드라이브와 TMS(수송관리시스템) 등 신기술도 접목되고 있다.

사례1 CJ GLS

소비재 상품군 물류공동화로 CO₂절감



CJ GLS는 여러 제조 및 유통업체에서 각각 차량을 이용해 거래처에 배송을 하던 것을 대항해 차량의 적재율을 높이고 운영갯수를 줄이고 있다.

특히 CJ GLS의 주요 고객군인 식품, 잡화 등 소비재상품은 매일 수많은 거래처에 배송을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물류공동화를 통한 차량 운행 감소는 CO₂절감에 탁월하다.

또한 TMS를 통해 출발지로부터 경유지, 마지막 배

송지까지의 최단거리 경로를 산출해냄으로써 연료의 소비를 최소화 하고 배송상품의 중량, 부피 등을 고려한 차량 배차로 적재율 향상과 함께 과적으로 인한 연료 과소비도 방지 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지붕에 투명 채광판을 설치해서 자연광을 활용해 전기사용량을 줄였으며 센터 내에서 운영중인 지게차 300여대(경유사용) 중 90%를 전기지게차로 교체했다.

이외에도 급제동, 급출발 금지, 공회전 금지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물류기업, 친환경기업으로 재탄생해야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경영환경의 변화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업이나 담배, 주류업 등이 그렇다.

녹색열풍이 불면서 물류기업들도 CO₂배출 주범이란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운송산업이 전 세계 CO₂배출량의 약 1/5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녹색물류를 서랍속에 넣어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석유기업 BP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손지기적 에너지 개혁에 반대하는 로비단체인 세계기후연맹(GCC)이 만들어졌다. 주로 석유, 석탄, 철강, 자동차 업체들이 가입했고 영국석유(British Petroleum)도 여기에 가입했다. 1997년 BP의 회장 존 브라운은 에너지 기업 BP를 공식 선포했다. BP란 기업명도 British Petroleum이 아닌 Beyond Petroleum(석유를 넘어서)으로 광고 했다. 회사의 심벌도 자연친화적인 해바라기로 변경했다. 이로써 BP는 정유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론자들의 비판을 피해갔다. 반면에 가장 큰 경쟁사인 엑슨모빌은 석유 누출과 CO₂방출 등의 주범으로 지목돼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다.

녹색이란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

녹색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다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획시리즈 / 2009 캠페인 “Go! Green Logistics”-9

국내 물류기업들은 물류분야에서 조차 화주 기업을 리드하지 못해 왔다. 정부에서도 종합물류기업인 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전문물류기업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순한 운송기능을 제외하고는 화주가 물류기업에게 주는 전문성에 대한 점수는 쩌다.

녹색물류는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탄소거래제를 대비해 탄소배출량을 계산·관리해 주고 탄소저감 물류 컨설팅을 통해 신규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순환형 회수물류,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등과 같은 서비스 영역도 확대시킬 수 있다.

사례2 용마로지스

화주기업 탄소배출량 감축 위한 플랫폼 개발 예정



용마로지스는 운송수단과 물류 거점을 개선함으로써 녹색물류를 실행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물류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용마로지스는 제약과 화장품 분야의 노하우를 살려 약 50여개 고객사의 물량을 공동수배송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LNG 혼소 차량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공회전 방지로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에코 드라이브도 시범 운행 중이다.

특히 용마로지스는 UN산하의 IPCC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을 근거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오고 있다. 배송부문, 차량당, 박스당, 주유 1L당 등의 차량 탄소 배출량과 전력, 전기 1kw당 배출량 등의 시설 탄소 배출량을 산출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973만원이다.

수송차량을 11톤 왕바디에서 25톤 더블테크로 대형화한 사례도 탄소배출량 감소 부분을 산출한 결과 22.9%의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용은 15.6% 감소된다.

이 외에도 경영 목표나 전략에 녹색물류 정책을 반영하고 화주기업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물류컨설팅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배수진 기자, sjbae@knews.co.kr)

TNT / CO₂배출량 감소 운동 ‘Planet Me’ 실시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이미 친환경기업으로 활발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다. TNT는 플래닛 미(planet me)라는 CO₂배출량 감소 운동을 통해 녹색물류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Planet me 캠페인은 Count carbon, Code Orange, Choose Orange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TNT의 녹색물류는 CO₂배출량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Count carbon) 또한 항공, 건물, 출장, 자동차, 포장재, 운송차량, 정책 등의 7가

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CO₂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Code Orange)

TNT 코리아도 2008년 초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이산화탄소를 최소화 시켰다. 글로벌 차원에서 2백 8십만 유로를 투자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출장 경비를 20% 절감, 연간 3백 2십만 유로의 비용을 절감에 성공했다. 생활속에서도 녹색을 물들이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권장하거나 자기평가를 통해 친환경지수를 측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Choose Orange)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 자가 평가서

항목	만점(point)	본인점수(point)
A. Save on cooling and heating		
1. 온도조절을 할 때 현재온도보다 1~2도 높게(낮게) 맞춘다.	3	
2. 취침 1시간 전에 온도를 높게(낮게) 설정해 놓는다.	3	
3. 에어컨 작동 시 1도 높게 온도를 설정한다.	2	
4. 빈 방의 냉난방기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다.	8	
Sub Total	16	-
B. Save on water		
1. 아침 샤워 시 2분 이내로 한다.	1	
2. 요리를 할 때 가능한 한 물을 적게 쓰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인다.	1	
3. 목욕 대신 샤워를 더 자주 한다.(목욕은 2배 이상의 뜨거운 물이 사용됨.)	2	
4.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한다.(40% 절약효과.)	2	
Sub Total	6	-
C. Save on lighting		
1.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다.	2	
2. 빈 방 불끄기.	3	
Sub Total	5	-
D. Save on travel		
1. 나는 타이어를 정기점검한다.	2	
2. 나는 1년에 한 번은 엔진점검 등 정밀점검을 한다.	5	
3. 일주일에 한 번은 자가용을 쉬게 한다.(카풀,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5	
4. 나는 부드럽게 운전한다.(악셀과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다룬다.)	6	
Sub Total	18	-
E. Save on electrical appliances		
1. 세탁은 30도 이하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 한다.	1	
2. 설거지와 빨래는 한 번에 몰아서 한다.	1	
3. 드라이클리닝보다 물세탁을 자주 한다.	6	
4.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은 완전히 끄고 콘센트도 뽑는다.	4	
Sub Total	12	-
F. Saving investments		
1. 보일러의 단열장치가 잘 되어 있다.	1	
2. 문이나 창문 틈 사이 문풍지가 붙어 있다.	3	
3.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	5	
4.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때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	19	
Sub Total	28	-
TOTAL	85	

※자료TNT

주의사항

1. 본인과 관계가 없는 질문(ex. D 항목의 경우 차량이 없는 사람)은 만점 점수를 기록합니다.
2. 최저점수는 '0' 점으로 기록합니다.